

남녀 은퇴자의 은퇴전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젠더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Retirees' Life Satisfaction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성미애
매릴랜드주립대학교 인구센터
연구위원 최새은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iai Sung

Maryland Populat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
Research Associate : Saeun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career characteristics on retirees' life satisfaction and investigated the interactive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 betwee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Data were drawn from 2 waves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e analytic sample included 158 retired men and 145 retired women in the second wave and all of whom had worked at the first wa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conditions significantly affected retirees' life satisfaction. Also, family characteristics in terms of a spouse's work status and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such as marriage and employment, influenced retirees' life satisfaction. Financi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living elsewhere also significantly affected retiree's life satisfaction. The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was only found in effects of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with a spouse vs. multiple generations living together) on retirees' life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 은퇴전이(retirement transition), 은퇴 후 생활만족도(retirees' life satisfaction),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

Corresponding Author : Saeun Choi, Maryland Populatio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 0124N Cole Student Activities Building (#162) * College Park, MD 20742 Tel: +1-301-588-5414 Fax: +1-301-405-5743 E-mail: saeeun@umd.edu

* 이 논문은 2008년 후기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한 것임.

I. 서론

일터와 가정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생산적인 노동이 이루어졌던 농업경제체제와는 달리, 산업경제 체제에서는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은퇴가 은퇴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생활사건이 된다. 특히 직업을 갖는 것이 보편화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은퇴 경험은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생활사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은퇴와 노년기 삶을 연결한 연구들(강인, 2007; 강지숙, 2008; 김애순, 윤진, 1995; 성미애, 1999; 성미애, 옥선화, 2004; 신화용, 조병은, 2001; 신희식, 이선정, 2007; 이가옥, 이지영, 2005; 지연경, 조병은, 1991; 허정무, 1994; 홍성희, 곽인숙, 2007)이 많이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은퇴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한 가지 관점은 은퇴를 하나의 위기 사건으로 보는 입장(Burgess, 1960; Miller, 1965; Phillipson, 1993)이다. 즉 은퇴를 지위의 상실, 자아정체감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삶의 후반기에 겪게 되는 큰 위기로 본다. 이에 비해 은퇴를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Atchley, 1971; George & Maddox, 1977; Kelly, 1996; Palmore, Fillenbaum, & George, 1984). 은퇴를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되는 위기 사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견할 수 있는 단계로 본다. 또한,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어느 한 단계의 잠정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은퇴가 생각만큼 큰 위기는 아니라는 견해를 취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은퇴 연령,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 비자발적 은퇴,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은퇴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며 은퇴 후의 적응도 힘들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경우 직업 세계에서 성취가 강조되며, 과도하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은퇴를 통해 직업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취지향적인 삶에 심표를 찍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는 은퇴의 의미를 은퇴 이전과 이후를 연결해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은퇴자의 생애과정을 은퇴 전과 은퇴 후라는 2단계로 구분해서, 은퇴 이전과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이전의 생활만족도가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은퇴를 기점으로 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변화를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삶에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두

가지 주된 생활영역, 즉 직업영역과 가족영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은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특성으로 구분하여 은퇴 전 생활만족도와 함께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부분적 종단 연구는 실제적으로 은퇴라는 전이 경험이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인지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남녀 모두 은퇴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근로환경이나 고용안정성, 고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1차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경우가 높은 남성의 경우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면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2차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경우가 높은 여성의 경우는 구분을 해서 살펴봐야 한다. 즉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해 은퇴 과정과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불평등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은퇴의 계층화(최몽정, 2005; Hardy, 1985) 개념에 따르면, 젠더 차이가 은퇴의 계층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김지경, 2005; 권승, 황규선, 2004).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정생활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에서는 남성의 은퇴와 여성의 은퇴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며, 은퇴자 스스로도 자신의 젠더에 따라 은퇴를 인식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더욱이 현 여성 은퇴자의 경우 가부장적 가치관의 잔존으로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상황을 개척하면서 직업 영역을 구축해 온 세대로서(성미애, 옥선화, 2004), 일 지향적인 성향을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미덕으로 인정받던 남성과는 상이한 사회적 기대와 규범 속에서 직업지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은퇴 이전과 이후의 생활만족도에 젠더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 전 생활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서 젠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젠더 차이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은퇴 전·후 남녀의 생활만족도(집,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직업, 건강) 수준은 어떠하며, 젠더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은퇴 전 생활만족도 및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 특성 변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면서 본 연구는 종단적 시각에

서 은퇴라는 생활사건이 은퇴자에게 어떤 경험이 되는지 은퇴 전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살펴 보면서 젠더별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의 차이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 은퇴자 및 은퇴자 관련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은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은퇴

은퇴란 일정 연령 이상의 자가 자신의 주된 직업에서 퇴직한 상태에 있으며 소득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구직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장지연, 2003)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삶과는 다른 삶으로의 전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는 단순히 직업을 상실하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인간관계 및 사회활동의 범위가 크게 변화함을 의미한다(허정무, 1994).

이러한 은퇴의 개념은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정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따른 정의, 노동시간이나 임금 수준에 따른 정의, 주요 직업의 중단과 관련된 정의, 연금수급에 따른 정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권문일, 1996).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패널조사 자료에서 조작적으로 규정한 은퇴 정의에 따라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2. 은퇴 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주로 정서적 차원인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서 자신의 전반적 삶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에서 초기 연구가 시작되었다(Pavot & Diener, 1993). 이후 생활만족도는 현재의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 가치 있고 성공적이라고 인정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주관적 복지를 나타내주는 감정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의미(김태현, 1998)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은퇴라는 전이 사건을 경험한 은

퇴자의 삶을 은퇴 전, 후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데에는 현재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라는 정서적 차원 외에 삶 전반에 대한 판단이라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생활만족도 개념(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Pavot & Diener, 1993)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은퇴한 현재의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 가치 있고 성공적이라고 인정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주관적 복지를 나타내주는 감정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¹⁾

1) 개인특성 변수

(1) 은퇴 전 생활만족도

은퇴를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은퇴 전부터 생활에 만족한 사람이 은퇴 후에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남성 은퇴자의 경우 성공적인 은퇴생활은 은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 등에 의해서 결정(Maddox, 1970)되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 은퇴자에게도 적용된 연구결과(성미애, 1999; 성미애, 옥선화, 2004)를 보면, 은퇴 전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연령

생애 과정적 관점에서 보면 연령은 단순히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궤적 속에 있는 개인 경험과 사회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성미애, 1999), 은퇴를 보는 관점도 결정할 수 있는 변수이다. 특히 연령 층화된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의 연령은 상황을 지각할 때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성미애, 1999),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개인에게 상이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보다 융통성 있는 가치를 갖게 하기 때문에(성미애, 1999), 은퇴를 상실이나 위기로 보기 보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게 하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은퇴 전 직업지위도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직업지위에서 오는

1)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젠더 별로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변수 고찰을 하였음.

보상이나 특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을 수 있을 것이다(성미애, 1999).

(4) 심리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건강상태만큼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갖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배경변수가 되며, 실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화용, 조병은, 2001).

(5) 신체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은퇴 이후 시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히 쇠퇴되는 노년기와도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합병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김태현 외, 1999)에서도 남녀 노인 모두 관절염, 고혈압, 만성위장병, 심장병, 백내장, 빈혈, 당뇨병 등의 질병 중 한 가지 이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질병을 많이 앓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지연경, 조병은, 1991).

2) 가족특성변수

(1) 세대구성

세대구성은 단순히 삶의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심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단일 세대만 생활하는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핵가족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부모세대가 은퇴 후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인 거주를 선호하는 경향이라는 연구결과(홍성희, 광인숙, 2007)를 보면, 독립된 단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현 은퇴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비교적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세대인 만큼,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의식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백지은, 2008). 따라서 세대 간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생활하는 다세대 구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을 살펴본 연구(김태현, 1981)에서도 한국 상황에서는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인 경우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2) 가계 월 소득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은 실제적인 생활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선행연구들(강인, 2007; 김태현 외, 1999; 신효식, 이선정, 2007; 지연경, 조병은, 1991 등)에서도 수입은 은퇴 후 생활이나 노년기 생활에 대한 만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3) 혼인상태

배우자는 은퇴자에게 있어 한평생을 함께하며 동일한 역사를 경험한 동료이자 부부가 중심이 되는 현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지지자이다. 특히 은퇴 후 생활에서는 적극적인 부모역할이 감소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중요한 가족관계가 된다(신화용, 1996). 따라서 선행연구들(김명자, 1982; 장상희, 1983)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의 사회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4) 배우자근로유무

은퇴자에게 있어 배우자의 근로유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은퇴 후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배우자가 은퇴를 하지 않고 직업역할을 계속할 경우 자신의 은퇴 후 직업 상실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주로 배우자와 함께 해야 하는 여가활동을 할 기회가 많은데, 배우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5) 자녀취업/결혼유무

자녀가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한국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되며, 경제적으로도 취업하지 않은 자녀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결혼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권문일, 1996; 성미애, 1999; 성미애, 옥선화, 2004)에서도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해야 부모의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보는 등 한국 사회만의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취업 및 결혼 유무에 따라 은퇴 후 결혼만족도는 변화될 것이다.

(6) 사적소득이전 유무(동거 자녀로부터)

은퇴 노인 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소득원천을 비교한 연구결과(김연정, 1998)에 따르면, 은퇴 노인가계의 경우 근로

소득 감소와 자산소득, 이진소득 등의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원의 부의 이전인 친지보조금은 총 소득원의 10%라는 비중을 보여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여와는 별개로 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소득이전 유무는 독립성의 가치가 중시되는 현 세대에게는 의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김태현 외, 1999)에서도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자립적인 노인이 의사결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사결정권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7) 사적소득이전유무(비동거 자녀로부터)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소득이전 유무는 동거 자녀와는 달리 자녀로부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할 개인성이 크다. 따라서 삶의 궤적에서 볼 때 전통적 가족주의를 내면화하고 성장한 현 은퇴자 세대는 비동거 자녀로부터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본인의 독립성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세대로부터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 은퇴 전 직업 특성

(1) 은퇴자발성 여부

자발적인 은퇴이거나 어느 정도 예상한 은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은퇴를 수용하는 자세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은퇴 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발적인 은퇴이거나 어느 정도 예상한 은퇴인 경우에는 은퇴를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도전 상황으로 지각(김애순, 윤진, 1995; 성미애, 옥선화, 2004)하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반면, 강제로 은퇴한 경우에는 역할상실감, 경제적 어려움,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수가 많다(장인현, 최성재, 2003, p. 171; 성미애, 옥선화, 2004).

(2)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우리나라 노인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이듯이(장인현, 최성재, 2003, pp. 141-145), 은퇴는 소득의 상실이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성미애, 1999) 이러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는 은퇴 후 고정적인 직업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받는 또 하나의 수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은퇴 전 직종

직종은 단순히 경험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성미애, 1999).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직업 위신도가 높으며, 직업에서의 정체감이나 내적인 만족감을 증시하여 왔기 때문에 은퇴를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Simpson, Back, & Mckinney, 1966: 신화용, 조병은, 2001에서 재인용). 반면,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보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성취지향적인 직업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사무직, 기술직, 서비스/판매직, 농업/어업이나 단순노무직에서 은퇴한 경우에는 은퇴 이전까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은퇴가 직업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활의 전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한 국민노후패널조사 1차(2005년)에 참여한 만 50세 이상의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중, 1차 조사 시에는 근로활동에 종사하였으나, 2차 조사 시에는 완전히 은퇴를 한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 전이를 경험한 지 만 2년 이내에 있는 (즉, 1차와 2차 조사 시기 사이) 만 50세 이상의 남녀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는 총 304명이었으나, 은퇴 후 생활만족도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남성 1명)가 있어 이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303명을(남성 158명, 여성 145명) 분석하였다.

2. 척도 구성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일문항으로 총체적인 생활만족 수준을 살펴보는 방법과 생활 전반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이전 및 은퇴 이후 생활세계의 각 하위영역별 만족 수준을 파악하면서 종합적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패널 자료에 제시된 집(주거상태나 주거환경),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직업생활(일), 건강 등 총 8가지 하위영역에 대해 “귀하는 현재 주어진 삶의 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토대

로 생활만족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은퇴 후 시점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은퇴하였기 때문에 직업(일) 영역에 관한 만족도를 제외한 7문항을 이용하였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매우 불만족'인 경우 1점, '매우 만족'인 경우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은퇴 전 생활만족도는 8가지 하위 영역의 산술 평균값으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7가지 하위 영역의 산술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8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은퇴 전 생활만족도의 내적합치도는 .78(Cronbach's alpha),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내적합치도는 .77(Cronbach's alpha)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심리적 건강 척도

심리적 건강 척도는 패널 자료에 제시된 "귀하의 심리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단일 문항을 이용하였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좋지 않다'인 경우 1점, '매우 좋다'인 경우 5점으로, 심리적 건강 척도는 1점부터 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3) 신체적 건강 척도

신체적 건강 척도는 패널 자료에 제시된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단일 문항을 이용하였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좋지 않다'인 경우 1점, '매우 좋다'인 경우 5점으로, 신체적 건강 척도는 1점부터 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패널 자료의 장점을 살려,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젠더별로 살펴보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은퇴 전 생활만족도 및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특성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젠더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일차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은퇴 전과 후 생활만족도에서 보이는 젠더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8 가지의 영역과(집,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직업생활, 건강) 평균 생활만족도 수준에 대한 t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은퇴 전이 경험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에 걸친 종단적 패널자료의 장점을 살려 본 연구는 은퇴전이를 경험하기 이전의 생활만족도를 (T1 생활만족도) 통

제 변수로서 회귀식에 투입하였다(모델1). 이는 종속변수의 기본 수준을 상정함으로써, 실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회과학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에 대하여 사전/사후 검사(pretest-posttest)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ohnson, 2005). 예를 들어, 개인적 특성(기질, 유년기 사회화,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사람은 은퇴전이 경험과 무관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종속변수(즉, 생활만족도)의 절대값이 아니라, 생활만족도의 이전 수준을 통제함으로써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T2)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제시되었던 연령, 교육수준,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변수와 세대구성, 가계총소득, 혼인상태, 사적소득 이전 유무와 같은 가족변수는 은퇴 후 시점(T2)으로 측정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직업 관련 변수 중 은퇴자발성 여부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가족변수 중 은퇴 시 배우자 근로유무, 은퇴 시 자녀취업 및 결혼유무는 2차 조사에서 비취업자(은퇴자)에게 주어진 회고적 질문을 이용하여 회귀식(모델 1)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젠더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젠더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변수 항을 투입하여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은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각각의 독립변수와 성별 변수간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총 15개의 상호작용 항을 차례로 회귀식(모델 1)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첫 단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상호작용 항을 회귀식(모델1)에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비교로 인한 오류(alpha slippage)를 피하기 위하여 Bonferroni correction을 실시하여 유의도 수준을 높여 최종 모델을 확정하였다(모델2).

이 연구의 모든 통계 검증은 STATA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 특성

조사대상자의 전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과반수인 58.23%가 60대였으며, 평균 연령은 66세였다. 고졸자가 전체 중 34.18%로 가장 많았으며, 절대 다수인 83.5%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반수(48.10%) 가량이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 특성

		남 (N = 158)		여 (N = 145)	
		빈도	%	빈도	%
개 인 특 성					
연령	50대	25	15.82	38	26.21
	60대	92	58.23	65	44.83
	70대	38	24.05	39	26.90
	80대 이상	3	1.90	3	2.07
교육수준	무학	7	4.43	34	23.45
	초졸	47	29.75	77	53.10
	중졸	24	15.19	17	11.72
	고졸	54	34.18	13	8.97
	대졸	21	13.29	4	2.76
	대학원이상	5	3.16	0	0.00
질환/장애 유무	있다	95	60.13	110	75.86
	없다	63	39.87	35	24.14
심리적 건강상태	매우좋지않다	9	5.70	9	6.21
	좋지않다	39	24.05	52	35.86
	보통	54	34.18	52	35.86
	좋다	46	29.11	30	20.69
	매우좋다	11	6.96	2	1.38
신체적 건강상태	매우좋지않다	30	18.99	33	22.76
	좋지않다	46	29.11	66	45.52
	보통	30	18.99	28	19.31
	좋다	44	27.85	16	11.03
	매우좋다	8	5.06	2	1.38
가 족 특 성					
세대구성	단일세대	89	56.33	86	59.31
	다세대	69	43.67	59	40.69
은퇴시 배우자 근로여부	예	50	31.65	55	37.93
	아니오	97	61.39	30	20.69
	해당 없음	11	6.96	60	41.38
은퇴시 자녀취업/결혼여부	예	65	41.14	74	51.03
	아니오	89	56.33	65	44.83
	해당 없음	4	2.53	8	4.14
가계 월소득	100만 미만	67	42.41	83	57.24
	100만-200만	28	17.72	35	24.14
	200만-300만	24	15.19	12	8.28
	300만-400만	14	8.86	9	6.21
	400만-500만	5	3.16	1	0.69
	500만-1000만	15	9.49	5	3.45
1000만 이상	5	3.16	0	0.00	

		남 (N = 158)		여 (N = 145)	
		빈도	%	빈도	%
사전이전소득 (동거자녀로)	있다	27	17.09	23	15.86
	없다	131	82.91	122	84.14
사적이전소득 (비동거자녀)	있다	102	64.56	105	72.41
	없다	56	35.44	40	27.59
은 퇴 전 직 업 특 성					
은퇴자발성 여부	스스로원함	42	26.58	46	31.72
	비자발적으로	116	73.42	99	68.28
사회보장급여 수급여부	있다	116	73.42	84	57.93
	없다	42	26.58	61	42.07
은퇴 전 직종	전문직	22	13.92	0	0.00
	기술직	35	22.15	9	6.21
	사무직	15	9.49	4	2.76
은퇴 전 직종	서비스/판매직	12	7.59	44	30.34
	단순노무직	49	31.01	40	27.59
	농업/어업	21	13.29	48	33.10
	기타/무응답	4	2.53	0	0.00

않았으나, 심리적 건강상태는 34.1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 (36.07%)가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29.75%)보다 많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도 반수에 가까운 44.83%가 60대였으며, 평균 연령은 65세였다. 남성과는 달리 초졸자가 과반수인 53.1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다수인 68.38%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12.51%에 불과하였다. 또한, 35.86%가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성과 달리 여성 은퇴자의 경우는 반수에 가까운 42.07%가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과반수인 56.33%가 단일세대로 구성된 가족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은퇴 시점에는 배우자도 근로를 하지 않고 은퇴한 경우가 과반수인 61.39%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의 은퇴 시점에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인 56.33%를 차지하였으며, 가계의 월 소득은 반수에 가까운 42.41%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가계 월 소득은 234만원이었다. 남성 은퇴자의 경우 절대 다수인 82.91%가 동거 자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비동거 자녀로부터는 과반수인 64.56%가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여성 은퇴자의 경우도 과반수인 59.31%가 단일세대로 구성된 가족에서 생

활을 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은퇴 시점에 배우자가 근로하지 않는 경우는 남성 은퇴자와 달리 20.6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남성 은퇴자와 달리 본인의 은퇴 시점에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한 경우가 과반수인 51.03%를 차지하였다. 가계 월 소득은 과반수인 57.24%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평균 가계 월 소득은 남성 은퇴자보다 현저히 낮은 124만 7천원이었다. 남성 은퇴자와 유사하게 절대 다수인 84.14%는 동거 자녀로부터는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72.41%는 비동거 자녀로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퇴 전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은퇴자의 경우 과반수인 73.42%가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73.42%가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에 근무한 직종을 살펴보면, 전문직과 기술직에서 은퇴한 경우가 각각 13.92%, 22.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순노무직에서 은퇴한 경우도 31.0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 은퇴자의 경우도 과반수인 68.28%가 어쩔 수 없이 은퇴한 경우였으며, 과반수인 57.93%가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성 은퇴자와는 달리 여성 은퇴자의 경우 전문직에서 은퇴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으며, 주로 농업 또는 어업이나 서비스직 또는 판매직에서 은퇴한 경우가 각각 33.10%, 30.34%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남성 은퇴자와 여성 은퇴자의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젠더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 교육수준, 은퇴 전 직업 특성에서 젠더 간 차이가 잘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은퇴의 계층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젠더라는 지적(김지경, 2005; 권승, 황규선, 2004)이 본 연구 대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의 삶이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성취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데 비해 여성의 삶은 가족 내로 축소되어, 생애주기를 걸친 여성의 노동 참가 형태는 파편화, 불연속적, 간헐적, 시간제 취업 등의 용어로 특징 지워진다(김영옥, 양인숙, 김한준, 2002)는 진술이 본 연구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 남녀 은퇴자의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및 젠더 차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은퇴 전 시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두 평균 이상의 생활만족도를 보였으나 젠더 차이가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활에 만족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86, p < .001$). 그러나 이러한 생활만족도에 대한 젠더 차이는 은퇴 후 시점이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하위 영역별로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를 젠더별로 살펴보면, 집에 대한 만족으로 대별되는 주거 상태나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은퇴 전·후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을 보이고는 있지만, 은퇴 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t = 2.55, p < .01$), 은퇴 후에는 이러한 젠더 차이가 사라진다.

한편,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은퇴 전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젠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은퇴 후 시점에서는 여성 은퇴자의 이웃관계 만족도가 남성 은퇴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59, p < .01$).

경제적 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은퇴 이전이나 은퇴 이후 모두 보통 수준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젠더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은퇴 전이나 은퇴 후에도 경제적 상태에 대한 만족 수준(은퇴 전 $t = 2.14, p < .05$ / 은퇴 후 $t = 2.03, p < .05$) 및 건강에 대한 만족 수준(은퇴 전 $t = 5.06, p < .001$ / 은퇴 후 $t = 3.84, p < .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남녀 은퇴자의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및 젠더 차이

생활만족도 영역	남자 (N = 158)		여자 (N = 145)		t 값
	Mean	SD	Mean	SD	
은퇴 전 (T1)					
집(주거상태/주거환경)	3.35	.89	3.08	.92	2.55**
이웃관계	3.73	.61	3.81	.67	-1.07
경제적상태	2.63	.95	2.41	.89	2.14*
친구관계	3.71	.71	3.62	.69	1.10
가족관계	3.80	.62	3.76	.66	.54
부부생활	3.77	.68	3.60	.76	1.70†
직업(일)	3.17	.90	2.73	.87	3.52***
건강	2.96	1.00	2.38	.97	5.06***
생활만족도(평균)	3.39	.52	3.16	.51	3.86***
은퇴 후 (T2)					
집(주거상태/주거환경)	3.44	.81	3.40	.86	.38
이웃관계	3.54	.72	3.74	.62	-2.59**
경제적상태	2.67	.87	2.47	.86	2.03*
친구관계	3.54	.75	3.63	.69	-1.09
가족관계	3.73	.71	3.71	.62	.22
부부생활	3.60	.75	3.63	.64	-.33
건강	2.70	1.12	2.24	.91	3.84***
생활만족도(평균)	3.31	.57	3.22	.46	1.42

주. 가족관계는 단독가구인 경우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은퇴 전에는 남성 158명, 여성 144명이 응답하였고, 은퇴 후에는 남성 157명, 여성 141명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응답하였음.

주. 부부생활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은퇴 전에는 남성 148명, 여성 86명, 은퇴 후에는 남성 145명, 여성 79명이 부부생활에 관한 만족도에 응답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3.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및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은퇴 전 생활만족도와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 특성 변수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모델 1), 심리적 건강상태($b = .18, p < .001$)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자각할수록 ($b = .13, p < .001$), 은퇴 전에 비하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 감소의 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도 .10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 p < .10$). 또한, 은퇴 전 생활만족도와 가족 및 은퇴 전 직업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성별과 교육수준은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8, ns; b = .09,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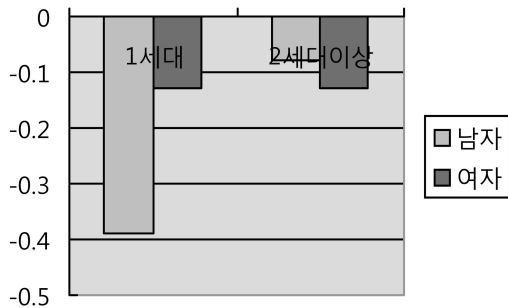
가족 특성 변수 중에서 은퇴 당시 가족 특성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

생활만족도와 개인특성, 은퇴 전 직업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은퇴 당시에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 = .11, p < .05$), 은퇴 당시에 자녀가 취업 또는 결혼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1, p < .05$). 또한 은퇴 후, 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수록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6, p < .01$). 그러나 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은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6, ns$). 또한 단일세대 가족에 비해 다세대를 이루고 사는 경우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b = -.00, ns$), 가계의 총소득 수준도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4, ns$). 마찬가지로, 은퇴 전 생활만족도와 개인, 가족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은퇴의 자발성 여부($b = .07, ns$), 은퇴 후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b = .02,$

〈표 3〉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

	Model1			Model2		
	B	SE B	β	B	SE B	β
은퇴 전 생활만족도	.22	(.05)	.23***	.22*	(.05)	.23***
연령	-.01	(.01)	-.01†	-.01	(.01)	-.13*
성별	-.08	(.06)	-.08	-.18	(.07)	-.18**
교육수준	.09	(.03)	.02	.02	(.03)	.04
심리적 건강상태	.18	(.03)	.35***	.19	(.03)	.36***
신체적 건강상태	.13	(.02)	.27***	.12	(.02)	.26***
세대구성 (일인/부부세대 = 0)	-.00	(.06)	-.00	-.14	(.08)	-.13
가계총소득(log)	.04	(.03)	.08	.03	(.03)	.05
혼인상태 (사별/이혼 = 0)	.04	(.06)	.03	.02	(.07)	.01
배우자 근로유무	.11	(.05)	.11*	.12	(.05)	.11*
자녀취업/결혼유무	.11	(.05)	.04*	.14	(.06)	.14**
사적소득이전유무 (동거자녀로부터)	.06	(.07)	.04	.01	(.08)	.00
사적소득이전유무 (비동거자녀로부터)	.16	(.06)	.14**	.17	(.06)	.15*
은퇴자발성여부	.07	(.05)	.06	.07	(.05)	.06
사회보장급여수급	.02	(.06)	.01	.00	(.07)	.00
마지막일자리 (전문직아님 = 0)	-.06	(.08)	-.04	-.04	(.08)	-.02
세대구성×성별				.34	(.10)	.26***
상수		1.72***			2.16***	
N		274			253	
R ²		.53			.55	

* $p < .05$, ** $p < .01$, *** $p < .001$



주. Y축: T1-T2 간의 생활만족도 차이
 주. X축: 세대구성

(그림 1) 세대구성과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

ns), 마지막 일자리의 전문직 여부($b = -.06$, ns) 등의 은퇴 전 직업 특성 변수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모델 2).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심리적 건강상태와 세대구성이 젠더에 따라 다르게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비교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세대구성만이 젠더와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일인가구나 부부만이 사는 단일세대 가구 구성에 비해 자녀나 노부모, 손자녀 등 다른 세대와 함께 사는 경우에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감소의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 = .34$, $p < .001$).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은퇴자들의 세대구성에 따른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동일하게 감소한데 반하여 ($\hat{Y}_{T2}(\text{여성}) - \hat{Y}_{T1}(\text{여성}) = -.18$), 남성은 은퇴 후 홀로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가($\hat{Y}_{T2}(\text{1세대 남성}) - \hat{Y}_{T1}(\text{1세대 남성}) = -.56$), 자녀나 노부모, 손자녀 등의 다른 세대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hat{Y}_{T2}(\text{2세대 남성}) - \hat{Y}_{T1}(\text{2세대 남성}) = -.22$)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감소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종단적 시각에서 은퇴의 의미를 은퇴 이전과 이후로 연결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노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은퇴자의 생애과정을 은퇴 전과 은퇴 후를 구분하여 젠더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은퇴 전의 생활만족도 및 개인,

가족, 은퇴 전 직업 특성 관련 변수들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패널조사 1차(2005년)와 2차(2007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50세 이상의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중, 1차 조사 시에는 근로활동에 종사하였으나, 2차 조사 시에는 완전히 은퇴를 한 303명(남성 158명, 여성 145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t -test, 일련의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전 시점과 은퇴 후 시점 모두 남성과 여성은 보통 이상의 생활만족도를 보인다. 그러나 젠더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은퇴 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은퇴 후에는 이러한 젠더 차이가 없어진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집에 대한 만족도로 대별되는 주거 상태나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은퇴 전에는 젠더 차이가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러한 젠더 차이가 사라진다. 그리고 은퇴 후 시점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웃관계에 대해서 더 만족한다. 반면, 경제적 상태나 건강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하는 수준이 높다.

남녀 모두 은퇴 후에도 보통 이상의 생활만족도를 보인다는 결과는,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은퇴를 급격한 지위 변화와 역할 변화를 가져오는 위기로 인식(이가옥, 이지영, 2005)하거나, 은퇴를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로 보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지연경, 조병은, 1991)와 배치된다. 이는 은퇴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은퇴를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 혹은 일반적인 삶의 단계로 인식하고 있기에 은퇴 이후에도 보통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하위영역별 생활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서 나타난 젠더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은퇴전이를 경험함으로써 수반되는 직장으로부터 집으로의 주된 생활공간의 이동이 갖는 의미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전이임에 반해, 여성의 경우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전이여서 은퇴 전에 보였던 생활만족도에서의 젠더차이가 상쇄된다. 그리고 남녀 은퇴자 모두 은퇴 후 주거 상태나 주거 환경에 만족하지만, 여성 은퇴자가 만족하는 수준이 더 높아 은퇴 전에 보였던 집에 대한 만족도에서의 젠더 차이가 상쇄되며, 은퇴 후에 상호작용할 기회가 높은 네트워크인 이웃관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이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은퇴 전보다 떨어지면서 은퇴 후에는 젠더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은퇴의 계층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젠더라는 지적(권승, 황규선, 2004; 김지경, 2005)처럼,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일관되게 경제적 상태

나 건강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특히 경제적 상태나 건강 수준은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만큼, 남성 은퇴자에 비해 여성 은퇴자의 생활이 힘들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비교적 교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여성 퇴직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가정생활이테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성미애, 옥선화, 2004)처럼, 직업인이라는 인식만큼 주부라는 인식도 크며, 이러한 인식이 은퇴를 좀 더 자연스러운 전이, 긍정적인 전이로 수용하게 한다. 또한 은퇴 전 직종에서 보이는 젠더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은퇴자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농업/어업 등에서 은퇴하였는데, 남성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리가 된다. 따라서 은퇴 상황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이로 인식하는 측면도 크다. 이처럼 은퇴 전이는 위기사건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은퇴자의 생활만족도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생활사건은 아니지만, 젠더 차이가 있어 여성보다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전이 사건이 된다.

둘째, 은퇴자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한다. 은퇴 당시의 가족 특성이 중요하여, 은퇴 당시 배우자가 계속 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한 경우 은퇴 후에 생활만족도의 감소를 덜 경험한다. 또한 은퇴 후 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 감소가 적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선행연구들(강인, 2007; 김태현 외, 1999; 신화용, 조병은, 2001)의 지적처럼 심리적 건강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경변수가 되며, 이러한 안정감과 통제감이 은퇴 후 생활만족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적 건강 역시 선행연구(지연경, 조병은, 1991)의 결과처럼, 독립성과 통제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은퇴로 인한 상실감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동반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임금 노동에 참여하여 본인의 은퇴 후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권문일, 1996; 성미애, 1999; 성미애, 옥선화, 2004)의 결과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이 부모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여부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소득이전 유무는 비교적 가족주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성장한 현 은퇴자 세대에게는 자녀로부터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은퇴 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은퇴자들이 어떻게 세대를 구성해서 생활하는가는 젠더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다. 즉 남성 은퇴자는 여성 은퇴자에 비해, 한 세대만 사는 경우가 아니라 자녀나 노부모, 손자녀 등 다른 세대와 함께 사는 경우 은퇴 후 생활만족도 수준이 감소하는 폭이 적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은퇴자의 경우 세대 간 독립성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존중을 받으며, 부모세대를 부양하거나 자녀세대를 거느리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에 큰 가치를 두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은퇴 후 생활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막아준다. 반면, 여성의 경우 2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노부모 부양 또는 자녀 간사 및 손자녀 양육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면서 받는 지지적인 요소가 부담감과 상쇄되면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은퇴 전이는 위기사건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은퇴자의 생활만족도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생활사건은 아니지만, 젠더 차이가 있어 여성보다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전이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의 경우 직장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을 여성보다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를 변화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어 부모세대를 부양하거나 자녀세대를 거느리고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 생활만족도 감소가 완화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은퇴를 부정적인 전이로 경험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젠더별 직종 분리 및 가정생활이테올로기 등 사회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제적 상태나 건강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은퇴 이전부터 일관되게 남성보다 낮은 것을 볼 때, 은퇴 후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성이 더 크게 받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준비 교육이나 은퇴자를 위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도 젠더 차이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녀 모두 은퇴를 위기의 생활사건으로 보지는 않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은퇴로 인해 이전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은퇴 준비 교육에서는 은퇴를 인생의 한 관문으로 인식하며, 은퇴 이후 노년기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은퇴 전부터 은퇴 이후 생활과 관련한 재무 설계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내용을 강화하며, 이웃 및 친구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및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남성의 경우 세대

구성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하락되는 것을 막아준 만큼, 이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그에 덧붙여 은퇴 후 생활은 부부관계를 통해 재구성됨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은퇴의 계층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젠더가 부각된 만큼, 사회구조적으로 교육수준, 직종 및 임금 수준에서의 불평등 등 젠더별 차이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적 시각에서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젠더에 따른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차이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차 자료(secondary data) 이용의 한계로 인해 개인, 가족 및 은퇴 전 직업 특성 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은퇴 전이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둔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노후패널조사는 현재까지 총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기 때문에(the two-wave panel data), 패널분석 방법의 한계가 있었다. 국민노후패널 자료가 보다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3차 이상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성장곡선 모델이나(growth curve model), 위계적 선형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s model) 등의 보다 다양한 종단적 패널분석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Frees, 2004), 은퇴전이 이후, 남녀의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에서 보이는 젠더 차이와 생활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별 상호작용 효과를 밝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젠더 차이가 은퇴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실제 생활만족도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서 보이는 젠더 차이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남성 은퇴자와 여성 은퇴자의 은퇴 후 생활세계가 다르게 구성되는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예비 은퇴자 및 은퇴자 관련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젠더별 차이를 반영한 콘텐츠 구축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은퇴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도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인(2007). 은퇴 남성 노인의 어려움과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복합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59-283.
- 강지숙(2008). 노인의 은퇴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8(3), 477-496.
- 권문일(1996). 노인의 퇴직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승, 황규선(2004). 노년층의 은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역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69-90.
-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애순, 윤진(1995). 은퇴이후의 사회심리적 영향 -은퇴는 위기인가?-. 조기퇴직과 장,노년기의 위기문제. 제6회 노인복지세미나. 서울: 서울특별시, 한국노년학회.
- 김지경(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김영옥, 양인숙, 김한준(2002). **지식경제의 여성인력 수요와 직종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현(1998). 노후생활 준비교육. **노후생활 준비교육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1-22.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예순(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II). **한국노년학**, 19(1), 61-81.
- 백지은(2008).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한국노년학**, 28(2), 227-249.
- 성미애(1999).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미애, 옥선화(2004). 여성 퇴직자의 퇴직 후 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16(2), 55-91.
- 신화용(1996). 남편의 은퇴와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부인과 남편의 지각 비교-.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4, 117-131.
- 신화용, 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신효식, 이선정(2007). 퇴직한 남자 노인의 가족자원 및 관련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87-213.
- 이가옥, 이지영(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93-120.
- 장상희(1983).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

- 회조사연구**, 2(1), 49-64.
- 장인협, 최성재(2003).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지연(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지연경, 조병은(1991).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문정(2005). 고령근로자 은퇴과정에 관한 연구: 주된 일자리와 은퇴과정 계층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정무(1994).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희, 광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 Atchley, R.(1971).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Continuity or crisis. *The Gerontologist*, 11(1), 13-17.
- Burgess, E.(1960). Family structure and relationship. In Burgess, E.(ed.). *Aging in western socie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Frees, E. W. (2004). *Longitudinal and Panel Data: Analysis and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orge, L., & Maddox, G. L.(1977). Subjective adaptation to loss of the work rol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32(4), 456-462.
- Hardy, A.(1985). Occupational structure and retirement In J. S. Blau(ed). *Current perspectives on aging and the life course*. Greenwich: JAI Press Inc. 111-146.
- Johnson, D.(2005). Two-wave panel analysis: Comparing statistical Methods for studying the effects of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061-1075.
- Kelly, J. R.(1996). *Leisure*. Needham Heights: Allyn & Bacon Co.
- Maddox, G. L.(1970).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1), 14-18.
- Miller, S.(1965). The social dilemma of the aging leisure participant. In Rose, A. & Peterson, W.(eds.).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 Philadelphia: F.A. Davis Co.
- Palmore, E. B., Fillenbaum, G. G., & George, L. K.(1984). Consequences of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9(1), 109-116.
- Pavot, W., & Diener, E.(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Phillipson, C.(1993). The sociology of retirement. In Bond, J., Coleman, P., & Peace, S.(eds.). *Ageing in society-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부록> 회귀식에 들어간 독립변수별 코딩 정보 가족특성 변수**
- 세대구성: (0 = 단일세대 / 1 = 다세대(부부와 자녀, 부모, 손자녀 등과 함께 거주)
 - * 단일세대에는 1인 가족과 부부가족 모두 포함(남성의 경우 1인 가족은 9명, 부부가족은 81명 / 여성의 경우 1인 가족은 45명, 부부가족은 41명)
 - 가계 총 월 소득 (log 값)
 - 은퇴 시 배우자의 근로유무 (0 = 배우자 근로 안함 / 1 = 배우자 근무 중)
 - *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니오' 라고 응답한 127명 외에 배우자가 없어서 '해당 없음' 으로 응답한 71명도 0으로 코딩(남-11, 여-60명)
 - 은퇴 시 자녀의 취업/결혼 유무 (0 = 자녀 취업/결혼 무 / 1 = 자녀 취업/결혼 유)
 - * 자녀가 결혼/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54명 외에 자녀가 없어서 '해당 없음' 으로 응답한 10명도 0으로 코딩(남-4명, 여-6명)
 - 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 유무 (0 = 없음 / 1 = 있음)
 -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 유무 (0 = 없음 / 1 = 있음)
- 직업특성 변수**
- 은퇴 자발성여부 (0 = 비자발적 / 1 = 자발적)
 - 사회보장급여 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로연금 등) (0 = 없다 / 1 = 있다)
 - 마지막 일자리 직업 : (0 = 전문직 아님 / 1 = 전문직)
- 접 수 일 : 2010년 7월 2일
 심사시작일 : 2010년 7월 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27일